

한국 근대 예술사진 아카이브(1910~1945)  
카메라당\*과 예술사진 시대  
(이경민 ·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엮음. 2010.  
아카이브박스)

이 미 영\*\*

오늘 날 사진이란 예술가를 비롯하여 많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매우 대중적인 표현매체이다. 이 대중성이 최근에 디지털이란 기술적 속성 때문에 보다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이견을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디지털이란 속성은 수많은 복제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이곳저곳에 쉽게 그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 흔적을 찾아 가치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세월과의 싸움이기도 하며 열정과 고집스러움, 성실함이 전제되어야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저자가 5년의 세월을 거쳐 탄생시킨 결과물인 이 책은 그 존재만으로도 환영받을 일이다. 저자 역시도 책머리의 가장 첫 문장에서 “한국 사진사 연구의 어려움은 실물 자료들이 거

---

\* 일제시대 아마추어 사진가는 소인(素人), 사진가, 카메라팬, 카메라맨, 카메라群, 카메라黨, 光畫黨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5p.)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의 남아 있지 않다는 데 있다”라고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기의 예술사진에 대한 기존의 단선적인 이해와 시각을 바로잡고 예술사진 담론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기획했다”는 이 책은 해방 이전에 발행된 각종 신문에 실리거나 화보로 게재된 예술사진을 모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술사진이란 ‘대상을 예술적인 시각에서 미적 감동을 일으키도록 찍은 사진’을 의미한다. 예술에는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술사진 역시 사진가가 대상에 대해 받은 영감과 주관적인 해석, 표현의 의도, 예술성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저자가 어떻게 ‘예술사진’이란 용어를 정의하고 범주화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술사진을 예술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제도의 산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실린 예술사진이란 당시에 개최된 공모전이나 전람회에 출품된 사진작품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생산 맥락이 전혀 다른 당시의 사진을 현재적 관점에서 예술사진으로 규정하는 의도적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서도 신문에 게재된 화보와 공모전 및 전람회를 대상으로 예술사진을 정리하였기에 누락된 내용이 적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한국 근대 예술사진의 종합적인 아카이브라기보다는 이를 구축하기 위한 주춧돌로서의 기초 자료집이자, 한국 근대 예술사진에 대한 담론을 위한 실체적인 접근의 시초란 의미부여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하는 싶다.

기록학 또는 기록관리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의 ‘아카이브’란 ‘보존 기록’으로서 기록의 실재를 의미한다. 즉 실제 공모전, 전람회 등에 출품되었던 사진의 원본(Original Photos) 자체를 아카이브로 떠올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을 기초 자료집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1910년~1920년대 예술사진

의 등장과 정착, 제2부는 1930년대 예술사진의 대중화, 제3부는 1930년대 예술사진의 제도화이다. 시계열적인 전개와 주제에 따른 분류가 공존하는 구성인 셈이다.

제1부에서는 ‘예술사진’이란 용어의 사용과 관련된 흔적을 쫓아 예술사진 활동과 예술의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사진에 대한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제2부에서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등장과 함께 그들을 대상으로 신문사가 주최한 사진 공모전과 신문사에서 소개하는 외국 예술사진을 통해 예술사진이 대중화 과정을 겪은 흔적들을 정리했다. 제3부에서는 1930년대를 중심으로 공모전을 통한 예술사진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당시에 열린 수많은 공모전이 근대적 사진 제도를 정착시키고 예술사진의 지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진사를 연구한 저자의 이력만큼 정확한 분석인 듯하다.

따라서 저자의 깊이있고 통찰력있는 분석내용을 기대했음에도 주제의 특성상 분석의 내용 보다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으며 신문에 실린 사진을 중심으로 책을 구성한 데에 따른 인쇄 상태의 미비는 아쉽기만 하다. 종이의 지질이나 색도 저자의 의도가 있긴 하겠으나 몇몇 사진을 그림인지 사진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 원본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대의 예술사진과 당시의 예술사진에 대한 의미차이를 보다 상세히 비교, 제시함으로써 예술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적, 실제적 궁금증이 100% 해소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